

제91회 기독교교육진흥주일



교사, 말씀을 더하다

2024년 9월 15일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지킵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2024년 기독교교육진흥주일 목회서신

감독회장 이철

2024년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아 다음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와 헌신하는 교사를 비롯한 사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은 교회학교의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주일로 다음세대의 희망을 노래하고, 교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다음세대 없이 교회의 내일이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는 출석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저출산과 인구 급감의 사회문제 속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새로운 세대의 눈으로 볼 때 이미 낡은 문화 취급을 받고 있고, 학원 수강과 입시교육에 밀려 교회에서의 활동은 파급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학교의 쇠퇴가 아니라 교회 자체의 존폐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신앙인으로서 결단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올해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다음세대 선교에 대한 새로운 다짐과 헌신을 하는 기회로 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세대가 없는 교회는 희망이 없고, 다음세대에 투자하지 않는 교회는 내일이 없습니다. 사실 교회는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어우러지고, 연륜과 패기, 전통과 비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열심히 미래 세대들을 전도하고,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일은 우리 교회를 푸른 교회로, 푸른 신앙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지, 어떤 유행을 쫓아다니는 것도, 다양한 교과과목을 가르치는데 머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인생을 이끌어 가는 가장 큰 에너지는 믿음입니다. 신앙교육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가장 큰 것을 믿는 자는 가장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윌리엄 거넬은 “너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볼 수 있지만, 너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결코 가릴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거룩한 소명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장성함은 무엇으로 측정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육은 지식이나, 학력 성취 이전에 사람의 실존 속에 성숙한 사랑, 예수의 인격을 새겨 넣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교회학교 부흥의 열쇠는 교사

교회학교의 부흥은 교사를 발굴하고 세우는데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을 이끌어 가는 가장 큰 에너지인 믿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미래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교사이기 때문

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지, 어떤 유행을 쫓아다니는 것도, 다양한 교과과목을 가르치는데 머물지도 않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과 더불어 교사 스스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더불어 우리 자신도 사랑으로 온전한 성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력이 있거나, 어떤 세상적 권위 때문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들 수 없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고, 지혜롭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원한다면,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린 디모데에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7)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분들을 찾아 교사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영적성장을 위한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은 교사에 중점을 두고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교회학교는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다는 진단을 내린 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이 어려울수록 환경을 탓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헌신해 온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가 살아야 교회학교가 살고, 나아가 미래 세대를 바르게 세워 교회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가 있기에 나이가 들어서도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열정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올해는 교사들을 위한 성경공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구약성경 4강의와 신약성경 4강의를 교사들의 눈높이에서 배우고 새길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활용하고 교사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나라에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하디 선교사입니다. 그 하디 선교사를 변화시킨 것이 바로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누구보다 열정이 넘치는 선교사였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하디 선교사를 회개시키고 변화로 이끌었던 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이후 하디선교사는 협성신학교와 피어선신학교의 교수와 교장으로 사역하면서 복음전도를 위해 기독교지도자를 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디 선교사에게서 다음세대회복을,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사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국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 영상들이 교사들에게 영적 성장을 돕는 자료로 귀하게 쓰이길 기대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맨 처음 이 땅에 교육의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배재학당의 출발점이 된 1885년 8월 3일은 바로 한국 근대교육이 시작된 날입니다. 개척 선교사 아펜젤러는 이 나라는 물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일 유익한 인재를 길러내’는 일에 더욱 힘썼습니다. 학교 교육이 우리 민족의 선물로 주어졌듯이 이제, 교회학교 교육이 다시 희망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다음세대를 살리는 것은 곧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감리교회와 교사들이 희망입니다.

기독교교육진흥주일 설교문

김언영 목사 (배화여자대학교)

여러분이 곧 메시지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8절

-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2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 3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 4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 5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 6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 7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 8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1. 한국 교회는 전래 초기부터 '성경 중심적'이며 '자발적인 복음 수용과 전도'라는 전형(典型)을 갖고서 성장했습니다. 한 영국 선교사가 죽는 순간까지도 전달했던 성경으로 인해 이 땅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고(1866년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존 로스 목사가 몇몇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만든 최초의 국역 성경인 누가복음, <예수성경 누가복음서>가 출판되고(1882년) 이렇게 출간된 성경은 초기 전도인이었던 권서(勸書)들의 목숨을 내건 활동으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어 성경이 번역되어 국내에 성경이 유입되어 임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상당수의 개종자가 생겨났다는 점은 놀랍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선교의 세기에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된 기독교의 복음 전파는 한국인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도입과 수용의 자세로 인해 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밀레니엄과 함께 시작된 전 세계적인 탈종교화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40대가 주도하고 10대와 20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기독교인 학생의 수는 해마다 줄어들어서 10~20% 내외로 집계되고 있는 것이 전국 기독교 대학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당면한 숙제입니다.

2. 성경 66권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닫힌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세대가 지나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거는 대화(dialogue)가 가능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읽혔어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행간의 의미를 찾아 나설 수 있을 뿐 아니라, 책을 읽는 것은 나인데 오히려 나를 읽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발견하는 치환이 가능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주도하에 가정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으레 저녁 밥상을 물리면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는 일이 저녁 일과였습니다. 그 시절에 읽었던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과 성경 구절이 아직도 저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조기 학습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문제는 그런 교육 방식이 먹히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3.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교육학자 마크 프레스키는 디지털 시대의 도구들에 둘러싸여 이를 사용하여 생애 전체를 보낸 세대를 가리켜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리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이 디지털 세대가 바로 MZ세대, 잘파세대(Z+Alpha)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학습을 위해 성인 세대의 지적 권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지식과 정보를 독점한 소수의 집단에 의해 교육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은 전문적인 집단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기독교 교육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 교육이 일방적인 구조에서 보다 개방적인 상호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디지털 세대는 디지털 감수성이 뛰어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본능적으로 습득하고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디지털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털이나 플랫폼 사이트의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편향적인 학습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문제의식 없이 무비판적이고 무절제하게 미디어에 매몰되어 가는 수동적 주체가 될 위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분별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힘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간편하게 요약된 자료들을 선호하는 경향, 그리고 이론적 설명보다는 이미지와 느낌을 중시하는 디지털 세대의 경향이 냉철한 비판이나 자기 성찰을 생략하도록 부추길 수 있기에 판단하는 능력과 비판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판단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4. ‘하부루타’ 학습법이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서로가 반론하면서 토론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공부법인데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학습 피라미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한 다음에 24시간 후에 남아있는 평균 기억률을 피라미드로 나타낸 모형인데 이것을 들여다보면 강의 전달 설명 5%, 읽기 10%, 시청각 교육 20%, 시범이나 현장 견학 30%, 토론 50%, 직접 해보기 75%, 서로 설명하기 90% 순으로 평균 기억률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친구를 가르치는 공부는 강의를 듣는 공부보다 18배의 효능성을 갖습니다. 배움은 교사로부터 나온다는 전제를 유보하고 배움이 학생에게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이 학습법이 교회 교육 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보다 역동적인 신앙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5.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강림절 사건 이후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 설교하면 하루에 삼천 명씩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던 때였습니다. 이유는 44절에서 47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든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들의 본이 되는 생활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전래된 후 지난 130여 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성장 가도만 달려온 한국 기독교의 신자 수는 조정 국면을 거쳐서 정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 기독교의 호감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1970년- 종교 선호도 1위 개신교 2위 불교 3위 가톨릭, 2023년-1위 불교 2위 가톨릭 3위 개신교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설득당하는데 말의 내용이나 논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메라비안의 법칙) 93% 이상은 첫인상의 호감도(청각이나 기타 비언어적 요소)가 좌우한다는 이론입니다. 물론 이 법칙에는 말과 그 말을 전달하는 이의 태도가 불일치할 경우에 첫인상이나 태도와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전달하려는 내용보다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만,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도 첫인상이 웬지 신뢰가 가지 않으면 사람들의 3분의 2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현실 속에서 처해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6. 목회자와 교사들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호감과 매력을 되찾고 매체가 메시지가 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 주역들입니다. 교회 교육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노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신앙 공동체가 매력적인 삶을 보여줄 때 세상을 향한 선포가 가능해진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록처럼 교회의 삶의 방식은 그 자체로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변화의 물꼬를 트고 주도하지 못한다면 교회 신앙교육은 종교적 이야기를 위한 클럽으로 변질되고 자칫하면 종교적 게토의 자리에 머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바른 매체가 되지 못하면 나름대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도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포만큼 중요한 것이 메시지를 읽고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대의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디모데 전서 4:11)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옛 생활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변화는 삶을 단단히 세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이 곧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8절) 우리도 이들과처럼 메시지가 되고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7. 교사는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는 공동체를 세우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정의를 추구하며, 공손한 자세로 소통하는, 화평을 세워가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세상에 대항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여러 방면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신앙적 대답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이 메신저로서 말씀을 가까이할 뿐 아니라 학생들을 보다 생동감 있게 가르치고 종국에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우는 상호 배움의 단계에 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런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삶이 바뀌고 새롭게 전환되는 역동적인 변화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곧 메시지니까요.